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5. 3. 10.(화) 14:00
- 장 소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스마트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3. 10.(화) 14:00 ~ 16:30
- 장 소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스마트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 사 회 : 문경주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좌 장 : 이기철 / 충청남도의회 의원
- 주제발표 : 이이화 /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임선빈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지정토론자
 - ▶ 황인덕 / 충남대학교 교수
 - ▶ 강종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사박물관장
 - ▶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 이무희 / 아산시 영인면 노인회장
 - ▶ 이흥복 / 아산총무회 회장
- 자유토론 및 청중토론
- 폐 회

< 자료집 순서 >

■ 발 제

- ☞ 민중에게 전해 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 1
이이화 전 이사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 걸인청의 역사적 실재와 활용방안 7
임선빈 전임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 토 론

- ☞ 임진왜란을 대비한 토정선생을 아십니까? 19
황인덕 교수(충남대학교)
-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 20
강종원 역사박물관장(충남역사문화연구원)
-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 22
이인배 선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 ☞ 아산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 조명과 복원방향 ... 24
이무희 회장(아산시 영인면 노인회)
- ☞ 토정선생과 걸인청을 활용한 아산 발전방안 27
이흥복 회장(아산총무회)

발 제

■ 민중에게 전해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

- 이 이 화 전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걸인청의 역사적 실재와 활용방향

- 임 선 빈 전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제1)

민중에게 전해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이사장 이 이 화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토정비결』

예전에는 설날만 되면 집안 식구나 동네 사람들이 용기종기 모여 앉아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았다. 이런 모습은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라고 할 만큼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이란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장차 행운이 닥쳐올지 불행이 밀려올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농사짓는 사람은 흉년이 들지, 밭집장수는 장사수가 좋을지, 또 돌림병이 돌아 급작스레 죽지나 않을지, 자녀의 혼인에 어떤 가문의 아들·딸을 택할지 등 모든 일이 궁금할 뿐이다. 이리하여 『토정비결』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거나 양법(禳法, 잡귀를 물리치는 일)을 쓰는 일 따위를 찾기도 했다.

이것을 보는 법은 간단하지만, 순 무식쟁이는 못 본다. 집안이나 동네에서 글을 조금 깨친 사람이 주로 보아주었다. 남들이 보아줄 적에는 ‘복채’를 내야 효험이 있다고들 생각했다.

필자도 어릴 적에 글을 좀 읽어서 설이 닥치는 정초에는 『토정비결』까나 보아주었다. 서울 변두리에 살 적에 어머니가 동네에 나가 “우리 아들이 『토정비결』을 잘 본다”고 선전을 한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늙고 젊은 동네 부인들이 날을 잡아 우리 집 좁은 방에 몰려와 뻑뻑이 들어찼다. 나는 제법 목청을 돋우어 풀이를 해주었다.

그러면 부인들은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나 직업적 ‘꾼’이 아니기 때문에 복채는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모두 가고 나면 요 밑이나 방구석에 얼마 안 되는 돈들이 놓여 있었다. 복채를 내는 것이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자 효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채를 놓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치는 『토정비결』은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일까? 먼저 지은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나 좋을 대로 살리라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1517~78)은 조선 중엽에 한산 이씨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래 보령 출신이었지만 어릴 적에 벼슬살이를 하는 만형 이지번을 따라 서울에 와 글공부를 했다. 광릉에 있을 적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공부에 심취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몸이 상할까 걱정하여 등불 기름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도끼를 들고 관솔을 따다가 불을 피워놓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는 경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백가에도 통달했다 한다. 그러나 과거공부는 통하지 않았다. 어른들이 과거를 보아 출세하라고 성화를 부리면 마지못해 과거장에 나가서도 과거 글을 짓지 않고 나오거나 지어놓고 내지 않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런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제각기 좋아하는 바가 있소. 나는 나 좋을 대로 살 것이외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문, 지리, 의약 등과 운수 보는 책, 점치는 책 같은 것에 열중했다. 얼마만큼 공부를 마치고는 지팡이 하나 짚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이이, 성혼 같은 사람들과 사귀었고, 지방에서는 지리산 밑에 사는 조식, 성운 같은 학자들과 어울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언젠가는 학문을 더욱더 다지기 위해 개성 화담으로 서경덕을 찾아갔다. 화담 선생으로 불리는 서경덕은 송악산 밑 화담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세상일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 도인이었다. 이지함은 화담 옆에 방을 얻어 서경덕에게서 제대로 학문을 익히려 했다.

어느 날 밥을 붙여먹고 있는 집주인이 장사를 나갔다. 그러자 헌헌장부인 이지함의 기골에 홀딱 반한 주인의 아내가 밤늦게 그의 방에 들어와 온갖 아양을 떨며 교태를 부렸다. 그러나 이지함은 점잖게 부인을 달랬다. 그래도 교태를 멈추지 않자 인륜을 따져 나무랐다고 한다. 마침 집 안에 들어선 주인이 문틈으로 이 모습을 낱낱이 보았다. 그는 한걸음에 서경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다. 서경덕은 집주인 손에 끌려와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

다음 날 이지함이 오자 서경덕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학업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겠네. 돌아가게” 이리하여 이지함의 학덕은 당대에 으뜸가는 스승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서울의 명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그가 1573년 스물여섯 살이 되었을 적에 나라에서 탁행卓行의 이름으로 늦은 나이의 그에게 포천현감의 벼슬을 내렸다. 이것은 큰 특혜였는데도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부임했다. 그가 부임할 적에는 벼룩에 짚신 차림이었다. 저녁때가 되어 그럴듯하게 밥상을 차려 내오자 새 원님은 멀거니 밥상을 내려다보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상을 밀어냈다. 사령은 더 거방지게 밥상을 차려 내왔다. 하지만 또 “먹을 것이 없구나”라며 밀어냈다. 밥상을 맡은 구실아치가 나와 잘못된 죄를 청하자 이렇게 말했다. “민생이 어려운데 모두 앉아서 얻어먹으면서도 절제가 없구나.”

그러고는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씩만 가져오게 하여 맛있게 먹었다. 이런 원님 밑에서 구실아치들이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는 “포천 땅에서는 곡식이 적게 나니 고기를 잡아 고을 경비에 쓰겠다. 그러니 그물이나 발 같은 것을 보내 달라”고 조정에 건의했다. 하지만 조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이듬해 원님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걸인청은 복지시설

만년에 또 한 번 조정에서 그에게 아산현감 자리를 내려주었다. 1570년대는 전국에 흉년이 연달아 들어 기아가 휩쓸었다. 이 무렵 그는 아산에 부임하여 맨 먼저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당시 아산 백성들은 양어를 번갈아 하여 공물로 관가에 고기를 바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임을 알고 양어장을 물어버렸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장사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늙거나 병들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특히 고을 안에 큰집을 지어 걸인청乞人廳을 설치하고 거지들을 모아 살게 하면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장사하는 법, 죄를 녹여 연장을 만드는 법 따위를 익히게 했다.

이것도 못하는 거지들은 따로 모아 짚신을 삼게 했다. 짚신 따위를 삼아 장터에 내다팔게 하여 생계대책을 세워주었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내니 가난한 이와 거지들은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해졌다.

걸인청은 일터로 상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수단이었으며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복지시설이었다. 유희 인력 자원을 활용한 멋진 아이디어였다. 이를 두고 신국주교수는 농업 상업 수공업업을 통한 복지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시대 조정이나 고을 원들은 이 걸인청을 빈민구제정책으로 더욱 활용치 않고 모르는 채하였을까?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돌림병이 돌면 곡식창고를 털어 길가에서 죽을 쑤어 주거나 몇 되 곡식을 나누어주는 미봉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이다. 장기의 구제대책을 세워줄 줄 몰랐다.

아무튼 이런 원님을 백성들은 부모처럼 섬겼다. 그러나 채 1년도 못 되어 그가 죽자 고을 백성들은 친 부모의 초상을 당한 듯이 통곡했다. 어릴 적에는 형수가 지어준 두루마기를 입고 바깥에 나갔다가 거지들에게 두루마기를 벗어주고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고을 원살이를 하면서 남을 위하는 이러한 마음을 한없이 베푼 것이리라.

두루 기인-이인으로 불리다

이지함은 능력 있는 사람이면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깎듯이 대우했다. 그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전라도 땅에 사는 한 어부였다. 그 어부는 고기를 능숙하게 낚고 배도 잘 부렸다. 어느 때에 그가 잡은 고기를 딸이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버지께 야단을 맞는다”고 딸을 나무라며 받은 돈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을 보고 그들 식구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뒤 그 어부를 다시 찾아보았으나 종적이 묘연하여 다시 만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늘 그리워했다.

그는 같은 서경덕의 제자로 홀로 생활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는 서치무라는 이를 존경했고, 미천한 신분이나 재주가 뛰어난 서기에게 글을 가르치며 온갖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또한 전라도 좌수영의 한 통인이 글을 열심히 읽자, 관청의 명부에서 빼내 글을 가르치고 일가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고 집까지 마련해주었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지함을 기인이니 이인이니 하며 불렀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까닭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는 대지팡이 하나를 벗 삼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다가 졸음이 오면 두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몸을 의지해 고개를 수그리고 잠을 잤다. 이런 모습으로 잠을 잘 적에는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마소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도리어 물러섰다 한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았고 잠을 깨지도 않았다고 한다.

보령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다닌다면 얼마나 멀까? 그런데도 그는 보령에서 아침 일찍 한 말 밥을 지어 먹고 줄곧 걸어서 하루 이틀이면 서울에 닿았으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축지를 한다, 차력을 한다, 도술을 부린다고 수군댔다.

그 시절에는 제주도에 드나드는 길이 여간 위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작은 조각배의 네 귀퉁이에 큰 바가지를 주렁주렁 달고 세 차례나 제주도를 드나들었다. 이것은 이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의 과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방안일 것이다.

그의 성품은 천의무봉 그대로여서 남의 눈치나 체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제주도에 다녀오는 길에 해남에 사는 벼슬아치인 이발李潑의 집을 찾아들었다. 며칠을 굶은 지라 몇 말의 밥을

해내오라고 소리쳤다. 밥이 들어오자 그는 수저를 제쳐둔 채 밥을 맨손으로 주먹만 하게 만들어 오른손으로는 밥을 입에 넣고 왼손으로는 반찬을 집어넣으며 순식간에 몇 말 밥을 다 해치웠다. 밤에 주인이 비단이불을 싸들고 들어와 함께 자며 담소를 나누고자 했으나 그는 한사코 혼자 자겠다고 했다.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악취가 풍겼고 이불을 젖혀보니 똥, 오줌을 그득하게 싸놓은 채 떠나버렸다 한다. 이지함이 설사가 났는지, 아니면 벼슬아치 출신이 잘사는 꼴에 눈이 시어서인지 간다온다 한 마디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 길로 그는 여수의 전라좌수영으로 갔다. 그는 수영 건물인 진남관 앞에서 겨울인데도 홑옷을 입고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짚신을 질질 끌며 머뭇거렸다. 문지기가 수상히 여겨 수사에게 고하자, 수사는 이지함을 짐작하고 뛰어나와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제주목사는 그의 높은 이름을 익히 들은지라, 그를 객사에 모시고 아리따운 기생에게 일렀다. “네가 만일 저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한다면 창고의 물건을 상으로 다 주겠노라.” 그날 밤 기생은 온갖 아양을 떨었으나 이지함은 미동도 하지 않고 물리쳤다고 한다. 서경덕이 여색을 멀리한 가르침을 실천한 것인 지도 모른다.

어느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고 손수 지휘하여 몇 년 안에 몇 만 섬의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았다. 그는 이 곡식을 빈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는데, 빈민들이 떠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부여잡은 소매를 뿌리치고 종적을 감추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어느 섬에 들어가 박을 섬 가득 심었다. 박이 익자 모두 거두어서 저자에 내다 팔아 곡식을 사니 곡식이 몇 천 섬이었다. 이 곡식을 마포로 실어 날라 마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서 마포 빈민굴 한가운데 토굴을 짓고 밤에는 토굴 속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토굴 위에 나와 지냈다.

이때부터 마포 사람들은 그를 흙으로 만든 정자에 산다고 하여 ‘토정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인으로 소문난 이지함을 이웃으로 삼은 만큼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혼인날을 잡아 달라거나 점을 쳐 달라거나, 처방을 해 달라거나 하며 온갖 일을 부탁했다. 이지함은 처음에는 웃으며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다 날이 갈수록 토굴에 사람들이 들끓자 일을 다 당해 낼 도리가 없어 책 한 권을 만들어냈다.

토정비결은 민중에게 위안을 주는 책

한 해 신수를 보는 책, 이것이 앞에서 말한 『토정비결』이다. 토정이 만든 비결이라 하여 마포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토정비결』은 육십갑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다. 육십갑자는 방위는 물론, 시일, 나이 등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된다.

첫째로 그 해의 간지(태세라고 함)에 따라 해마다 매겨진 일정한 숫자와 나이를 합하여 8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는 8), 다음은 태어난 달의 수(음력으로 큰 달은 30, 작은 달은 29)와 태어난 달의 간지수(월건이라고 함)를 합하여 5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6), 셋째로 생일의 수(15일생이면 15)와 생일의 간지(일진이라고 함)를 합하여 3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3), 이 셋을 세 단위로 한 것이 1년 신수의 숫자가 된다. 세 숫자가 모두 1이 나왔다면 ‘1·1·1’이 되는데 ‘1·1·1’에 가 찾아보면 앞에는 1년의 운수, 뒤에는 달의 운수가 적혀 있다.

8로 나누는 것은 8의 제곱, 곧 '8×8=64'가 주역의 64괘를 뜻하며, 6으로 나누는 것은 6의 제곱 곧 '6×6=36'이 모든 방위를 뜻하며, 3으로 나누는 것은 3의 제곱 곧 '3×3=9'가 양수(홀수)의 가장 끝자리로 가장 좋은 수 9를 뜻한다. 이렇게 하여 '1·1·1'이 나왔으면 1년 운수로 '동풍해빙東風解冰, 곧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고목봉춘枯木逢春, 곧 마른 나무가 봄을 만나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운수를 잡은 사람은 빙그레 웃음이 날 것이다.

그리고 '2·2·2'가 나왔다면 1년 운수로 '청천백일靑天白日, 곧 맑은 하늘과 환한 햇볕에, 음운몽몽陰雲濛濛, 곧 음울한 구름이 확 끼었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운수를 잡은 사람은 상을 찡그릴 것이다.

그리고 달의 운수에는 '이사를 함부로 가지 말라'거나 '서쪽으로 나다니지 말라'거나 '어렵다가도 귀인이 와서 도움을 준다'거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조심을 하면 풀린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1년 운수의 내용에는 하나의 음모라 할 구절을 여기저기에 깔아놓았다. 근면과 정직과 성실과 제 분수를 실행하고 지키라고 대목대목 엮어 넣은 것이다. 보기를 들어보자. '2·2·1'의 1년 운수에 '부지안분不知安分, 곧 제 분수를 알지 못하면 반위수상反爲殊常, 곧 도리어 수상하게 된다'고 하는 따위이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출세나 부자가 된다는 따위의 행운을 말하면서도 빈부나 귀만을 따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대개 추상적이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만들어두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맞는다고 보아야 할까? 얼마 전에 승려였다가 환속한 어떤 이가 『운수 보는 책』을 내놓고 인생의 운명이 그 책으로 결정되는 양 선전을 해대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장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짓이라고 마땅치 못해하는 이들도 많다.

『토정비결』은 144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앞서 나온 방식에 따라 첫자리가 1에서 8까지이고, 가운데 숫자가 1에서 6까지, 그리고 끝자리 숫자가 1에서 3까지이다 보니 144항이 나온 것인데, 수많은 인종이 이 분류에만 맞게 운수가 정해져 있을까? 설령 비슷한 운명을 여러 사람이 가졌다 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변용하는 수가 있더라도 산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요, 농사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간상 모리배나 정직한 예술가들의 행동반경이나 사고형태는 다를 것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뒷세상에 이지함이 이 책을 만들 적에 너무 잘 맞으면 사람들이 일도 않고 이 책만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하여 내용을 잘 맞지 않게 뒤섞어놓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 말은 바로 『토정비결』을 보고 운수가 나쁘게 나오면 “조심하라는 뜻이야” 하고 웃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근래 한 학자가 『토정비결』의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다고 하나 얼마만한 논리를 전개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지함이 민중들에게 위안을 주고 재미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엮었던 만큼 오늘의 우리도 심심풀이나 다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토정비결』은 일생의 운명을 보는 『당사주』와 함께 민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지함은 상수학(수리를 푸는 점 같은 것으로, 『주역』이 대표적인 책이다)에 밝은 학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음양학이나 도가의 글에도 정통했다. 그리하여 민중들이 서경덕을 신으로 모시듯이, 이지함 역시 민중의 우상이었다. 이런 모습은 앞에서 알아본 대로 자기의 명리를 떨쳐버리고 오직 가난하거나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생애를 보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서러운 이들의 사랑을 받다

이지함의 일화 하나를 더 알아보자. 이지함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바닷가 언덕에 잡았다. 그는 조수가 자꾸 밀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바닷물이 어머니 무덤까지 침식할 것을 내다 보고 어렵게 돈을 모아 방축을 쌓았다.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무덤에 방축을 쌓는다고 비웃자, 이지함은 말했다.

사람의 힘이 미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따질 것 없이 힘이 있는 한 노력해보아야 할 것이요.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힘이 부족하다고 뒷날의 근심을 막지 않으리오.

그러고는 공력이 많이 드는데도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 한다. 이것은 바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장래를 내다본 것이요, 인간의 노력을 중시한 태도이다.

그는 벼슬을 하려 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벼슬살이를 권하지 않았다. 그의 조카들이 영의정 같은 높은 벼슬자리에 많이 나아갔을 적에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에는 내 자손이 영락하지만 먼 훗날에는 번성할 것이로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 장래를 내다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진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뒷세상에 난리가 잦을 터이니 산과 들에서 살아라.

곧 벼슬살이를 하지 말라는 말로, 이 내용을 적은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이라는 책을 은밀히 만들어 주었다 한다. 이 책은 그 진부 여부를 떠나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위의 얘기에는 과장된 사실도 많은 것이지만 민중의 입을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지함은 이인이라기보다 처사였고 기인이라기보다 지사였다. 그렇기에 뒷날 박지원은 그를 주인공으로 한 『허생전』을 써서 세상에 알렸던 것이다. 『토정비결』도 이런 이지함의 뜻, 곧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고치고 귀천을 가리는 사회를 꾸짖으며 나태를 막고 근면을 권장하면서 민중들에게 한 가닥 위안을 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유의해두어야 할 것이다.

(발제2)

‘결인청’의 역사적 실재와 활용방향

한국학중앙연구원

임 선 빈

1. 머리말

토정 이지함(1517~1578)은 그의 학문이나 역사적 위상보다는 민중에게 친숙한 『토정비결』의 저자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지함을 자기 고장의 역사적 인물로 선정하여 선양하고 있는데, 이 또한 토정비결에서 비롯된 지명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¹⁾

그동안 이지함에 대한 연구는 이지함 자신의 저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 사상계의 동향을 주자성리학 일색으로 파악하는 연구동향 때문에 체계적 연구가 많지 않았다. 강성조는 사화라는 시대상황에서 자신의 학문과 경륜을 편 학자라는 관점에서 이지함을 연구했으며, 윤태현은 토정을 실학사상의 개조로 파악한 연구를 하였고, 김용덕은 이지함의 경제사상이 박제가 등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신병주는 토정을 처사형 학자로 보고, 그의 도학적 위상을 연구하였다.²⁾

토정설화는 『구비문학대계』를 비롯한 설화집에 수록된 자료 84편, 『어우야담(於于野談)』, 『계서야담』, 『기문총화』등 조선조 문헌설화집에 수록된 자료 27편, 합계 총 111편의 설화가 전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운식의 연구가 있다.³⁾

토정비결에 관한 연구는 『토정비결』만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는 많지 않고, 토정비결과 다른 비결서를 비교한 연구, 토정비결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토정 이지함에 대한 연구에서 간간히 언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토정비결과 이지함의 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

아산은 토정 이지함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2개월여 만에 타계한 고을이다. 따라서 아산에는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자원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결인청’도 있다. 아산에서는 이와 같은 토정 이지함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필자도 이지함이 태어나고 묻힌 고장인 보령시에서 토정 이지함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의 책임을 맡아 토정 이지함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다.(보령시·충남발전연구원, 『토정 이지함을 활용한 축제 개발 연구』, 2004. 2.)

2) 강성조, 「토정 이지함 연구」, 『인천대학 논문집』5, 1983

윤태현, 「토정의 사회개혁사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2

김용덕, 「이지함의 경제사상」, 『한국의 사상』, 1984, 열음사

신병주, 「토정 이지함의 학풍과 사회경제사상」, 『규장각』19,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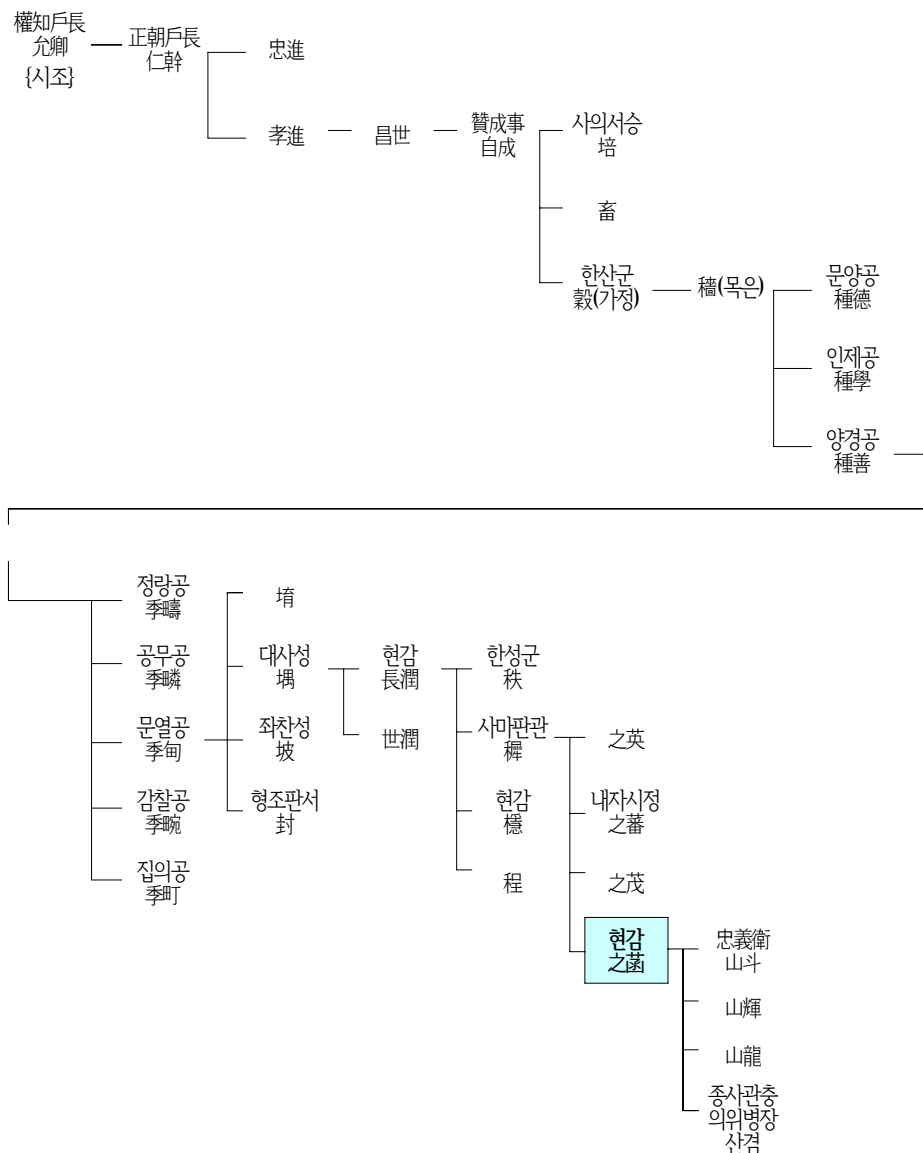
3) 최운식, 「설화에 나타난 토정의 모습」, 『설화와 역사』, 2000, 집문당

최운식, 「토정 이지함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33-1, 2001

2. 이지함의 家系와 생애

토정 이지함은 한산이씨로 여말 삼은(三隱) 중 1인인 목은 이색의 7세손이다. 한산이씨는 이색 이후 고위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계속 배출되었고, 특히 목은의 손자이자 이지함의 고조부인 이계전(李季甸)은 1453년 계유정난에 참여하여 정인지 등과 함께 정난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문의 영예는 조금 퇴색하여, 이지함의 조부 이장윤(李長潤)과 아버지 이치(李穰)는 현감과 현령에 머물렀다. 아버지 이치는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이미 사망한 종조부(從祖父) 이파(李坡)의 성종 때의 폐비사건에 연루되어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귀양에서 풀려났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수원통판(水原通判)을 지내다 이지함이 14세 되던 해에 죽었다.

토정 이지함 가계도



이지함의 집안은 고조부 이계전이 공신에 녹훈되면서 전국 각지의 토지를 사패지로 받게 되었으나, 이지함 선대의 주된 거주지는 서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사와 생원 급제자의 명단인 『사마방목』에서 이지함의 조부와 부친의 거주지도 서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토정 이지함의 출생지는 서울이 아니라 외가인 보령으로 추측된다. 토정이 살았던 시대인 조선전기의 혼례 풍습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으므로, 아마 외가인 지금의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이지함의 외가인 광산김씨가 고려말부터 터를 잡아 살아온 세거지이다.

토정의 생애는 태어나서 형 이지번(李之蕃)에게 학문을 배우던 시기와, 혼인 후 충주에서 거주하며 정치적 불행을 겪던 시기, 그 후 전국을 유랑하면서 대학자들과 교류하며 경제사상을 확립하게 되는 시기, 마지막으로 포천과 아산의 현감으로 나아가 뜻을 펼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토정 이지함이 보령에서 태어난 후 초년기는 외가인 보령과 관직에 있던 부친을 따라 서울 등지에서 보냈을 것으로 여겨진다. 15세에 부친을 잃고, 17세에 모친이 사망하자 3년간 형 이지번과 함께 여막 살이를 하였다. 3년상을 치른 뒤에는 형 이지번으로부터 학문을 배우며 학업에 전념하였다.

그 후 전주이씨 모산수(毛山守) 이정랑(李呈琅)의 딸과 혼인한 후 처가인 충청북도 충주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1548년 절친한 친구였던 사관 안명세(安名世)가 을사사화의 여파로 사형 당하자, 이지함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중봉 조헌은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이지함이 안명세의 처형을 보고 해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미치광이로 세상을 도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바로 이듬해인 1549년(명종 5)에 ‘이홍남 고변사건(李洪南 告變事件)’에 연루되어 장인인 이정랑이 장형(杖刑)을 받다가 사망하고, 사후에 능지처사되며 선원록(璿源錄)에서 자손의 이름이 삭제되는 등, 처가가 큰 화를 입게 되자 이지함은 일가를 이끌고 충주를 떠났다고 한다.

충주를 떠난 후에는 보령과 서울 마포 등을 주된 근거지로 하며, 전국을 유랑 하였다. 사화에 친구를 잃고, 처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사상의 형성과 정치참여 의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적 불행 속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민생의 현실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지함의 유랑으로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지함의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이지함은 1573년(선조 6)에 비로소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탁행(卓行)으로 천거받아 종6품직 벼슬에 올라 1574년 포천현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경제책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였다. 1578년 다시 아산현감에 제수되어 비로소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아산현감 재직 중 조정에 올린 시무책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3. 이지함의 仕宦과 업적

토정 이지함은 평생 유랑생활을 하다가, 57세가 넘은 만년에 두 차례 벼슬길에 나아갔으니,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이다.

먼저 선조 6년(1573, 이지함 57세)에 이조에서 은둔한 선비 중 학행이 두드러지게 알려진 선비 5인을 추천하였다. 이때 정인홍, 최영경 등 남명 조식의 문인들과 함께 이지함을 거론하고, 그들에게 참상관(參上官)에 상당한 벼슬을 줄 것을 청하여, 6품 관직을 내렸다.⁴⁾ 이때 이지함은 포천현감에 제수되어 1573년(선조 6) 7월 부임하였다.⁵⁾ 현감은 외관직 동반 종6품직이다. 그러나 1년 후인 1574년(선조 7, 58세)

4)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6월 3일(신해)조, 『선조수정실록』 권7, 선조 6년 5월 1일(경진)조.

5)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7월 6일(갑신)조, 12일(경인)조.

8월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조정에 상소를 올렸으나 실현되지 않자, 병을 핑계하고 사직한 것이다.⁶⁾

당시의 상소문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세가지 방책[三計策]이 제시되었다. 상책은 인심을 바르게 하기, 중책은 이조와 병조의 적절한 관리, 하책은 육지와 해양의 적극적인 자원 개발이었다. 이지함은 이 3책 가운데 빈민구제책으로 하책을 가장 중시하였으니, 그의 사상과 현실관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는 재임 중 무주(無主) 무소속의 해도(海島)를 얻어 기민으로 하여금 어염에 종사케 하여 그 소득으로 양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군현이 독자적 경제단위로 존재함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아에서만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 이용할 수 있다는 폐쇄성을 경제개발의 질곡으로 보고 그 지양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반대로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선조수정실록에는 “포천 현감(抱川縣監) 이지함(李芝菡)은 원으로 있으면서 스스로의 처신을 검소하게 하고 백성 보기를 자식처럼 하였다. 고을이 빈약하여 곡식이 모자라자 조정에 건백하여 해읍(海邑)의 어량(漁梁)을 절수(折受)받아 곡식을 사서 빈약한 재정을 보충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이 따라주지 않았다. 지함은 본디 고을 원으로 오랫동안 머무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곧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돌아갔다.”⁷⁾고 기록되었다.

이지함이 포천현감으로 재직시의 전설 및 일화로는 재직 중 임진강의 범람을 미리 알아서 많은 생명을 구제하였으며, 포천현감에 부임할 때 소박한 옷차림과 소박한 음식상을 받아 아전을 놀라게 한 일화가 전해진다.⁸⁾

이지함은 1578년(선조 11, 62세) 5월에 탁행(卓行)이 있다는 천거(薦舉)를 받아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이지함에게 아산현감을 제배하자, 학행으로 부름 받은 신하를 외관에 보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공의(公議)가 시끄럽다하여 사헌부에서 이지함을 상당한 다른 관직에 다시 제수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어진사람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등용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헌부의 청을 윤택하지 않았다.⁹⁾

이지함은 1578년(선조 11) 5월에 부임하자 바로 시폐를 상소하였다. 이 상소의 내용은 군제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첫째 군적(軍籍)의 정상화, 둘째 군액(軍額)과 군역(軍役)의 감소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선조는 ‘그대의 뜻이 옳다’라는 답을 내렸지만,¹⁰⁾ 이지함이 제안한 시책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 이지함이 곧 아산현 관아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지함의 제안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실행되지는 못하였다.¹¹⁾

이지함은 아산현감 재직 중에 죽었으므로 아산지역에 전해지는 흥미로운 전설이 많다. 우선 현감 재직시의 활약과 관련한 전설로는 ① 결인청을 세우고 직접 결인청에 나가 거기에 온 사람들을 살피는 이야기, ② 결인청에 온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는 미투리를 삼도록 하고, 친히 감독하여 하루에 10결레씩 만들어 팔게 한 이야기, ③ 결인청에 오는 유랑민을 보살피다가 해사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은 후로 잊지 못하던 희수를 만난 이야기, ④ 아산현의 뚝방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진상품이 되어 백성

6) 『선조수정실록』 권8, 선조 7년 8월 1일(임인)조.

7) 위와 같음.

8) 소박한 음식상을 받은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정은 부임할 때 나발과 환영행사를 물리치고 조용히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도착한 토정은 베옷에 짚신을 갈아입었다. 때가 되어 들어온 저녁상에는 진수성찬이 가득 올라와 있었다. 토정이 수저도 들지 않고 물끄러미 상을 내려다보자 아전들은 상이 빈약해서 그러는 것으로 짐작했는지 황급히 더 큰 상을 차려 왔다. 그래도 토정은 밥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먹을 만 한게 없소」 관리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허둥댔다. 그러자 토정은 넋지시 잡곡밥과 나물국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을 달게 먹었다.

9)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5일(을묘)조.

10)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5월 6일(병진)조.

11) 사실 충청도 도사가 아산현감 이지함의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이지함은 관아에서 타계했다.

들이 그것을 낚느라 고생하는 사실을 알고 뚝뚝을 훔쳐서 매워버렸다는 이야기 등이 있으며, 죽음과 관련한 전설로는 ① 이지함에게 불만을 품은 아전이 이지함이 지네죽을 먹고서 생밤을 먹어야 하는데 생밤 대신 버드나무 껍을 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② 토정이 영인면 어금니 바위 아래에 금은 보화를 숨긴 것으로 알고 토정이 생밤을 먹어야 할 때 버드나무 껍을 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

아산에는 이지함과 관련된 유적으로 인산서원(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서원골), 이지함 영모비(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여민루(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향교(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어금니바위(토정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 등이 있다.

4. 결인청의 實在와 記憶

이지함이 생존해 있던 시기의 당대 기록물에서는 ‘결인청’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포천현감과 아산현감 재임과 관련된 실록기사에도 결인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지함이 생존했던 시기의 실록기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춘추관일기, 승정원일기, 각사등록 등과 같은 관련 기록들이 모두 소실되어 실록 편찬의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이전 부분은 어느 실록보다도 부실하다. 영세한 사료를 수집하여 편찬함으로써 분량이 매우 적고, 기사도 소략하다. 특히 광해군 재위시기에 편찬된 선조실록(1609년 7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6년 11월에 완성)은 임진왜란 이전의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인조반정 이후의 서인 정권은 선조실록의 잘못된 사실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서인세력에게 유리한 실록을 남기기 위해) 선조수정실록 편찬을 시도하여 1657년(효종 8) 9월에 완성하였다. 이는 선조가 붕어한지 49년 후이며, 이지함이 타계한지는 79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이 선조수정실록에는 이지함에 관한 기록이 선조실록보다 훨씬 자세하며, 특히 졸기의 기사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이 선조수정실록의 이지함 졸기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① 모산수(毛山守) 정랑(呈琅)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초례를 지낸 다음 날 밖에 나갔다가 늦게야 들어왔다. 집 사람들이 그가 나갈 때 입었던 새 도포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니, 홍제교(弘濟橋)를 지나다가 얼어서 죽게 된 거지 아이들을 만나 도포를 세 폭으로 나누어 세 아이에게 입혀주었다고 하였다.¹²⁾

② 그는 항상 말하기를, “내가 1백 리 되는 고을을 얻어서 정치를 하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만들고 어지러운 정치를 다스리게 하여 나라의 보장(保障)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말년에 아산군(牙山郡)에 부임하여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의 정치는 백성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해를 없애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한창 시설을 갖추어 갔는데 갑자기 병으로 졸하니, 고을 사람들은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였다.¹³⁾

12) 『선조수정실록』 권12, 선조 11년 7월 1일(경술)조.

13) 위와 같음.

①은 이지함이 혼인을 했을 때이니, 20세 전후 시기의 일이다. 이지함은 젊었을 때부터 기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들을 구휼하는 심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를 보면 이지함은 고을의 목민관이 된다면 ‘가난한 백성을 부자로 만들고 야박한 풍속을 돈독하게 만들’고자 하였으며,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여 2개월 남짓 재임하다가 타계하였지만, ‘백성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아서 해를 없애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한창 시설을 갖추어나갔음[末年赴牙山爲政, 其治以愛民爲主, 除害祛弊, 方有施設]’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일컫는 시설 가운데 ‘결인청’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이지함 졸기는 선조수정실록이 완성된 시기가 1657년이니, 이지함이 졸한 1578년으로부터 79년이나 지난 이후의 기록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3세대에 걸친 후대인이 기억하고 싶은 이지함의 모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지함은 죽은지 135년이 지난 1713년(숙종 39)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40년이 지난 1718년(숙종 44)에는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¹⁴⁾ 그런데 이 시장을 사헌부 대사헌인 병산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 찬했다. 시장의 내용은 이지함의 현손 이정익(李禎翊)의 가승(家乘)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장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일찍이 넓은 집을 지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이곳에 두고 수공업을 가르쳐 각각 그들의 옷과 먹을 것을 마련하도록 하되, 가장 능력이 없는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면 하루에 일한 것으로 쌀 한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¹⁵⁾

또한 2년이 지나 1720년에 초간된 토정유고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일>로 다음과 같은 결인청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다.

선생이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사농공가(士農工賈)에 수공업을 가르치되 모두 친절히 일러서 각각 의식이 넉넉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니 하루에 10결레를 만들어 팔수가 있었다. 하루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사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그 중에 남는 것으로 옷을 지어 입도록 하니, 두어달 사이에 의식이 모두 충족되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로써 본다면 어찌 백성이 게으름으로 주린 것이지 비록 노약하다고 하더라도 백가지에 하나라도 능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짚신도 삼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음을 보겠는가. 선생이 백성에게 가까운 효과를 보인 것이 오묘하다 할 것인저!¹⁶⁾

아마 이관명이 찬한 이지함 시장 안의 앞의 기사는 이 토정유고 유사(遺事)의 <혹인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위의 토정유고에 실린 ‘혹인기사’가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결인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로 이해된다.¹⁷⁾

14)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 9월 17일(임진)조.

15) 嘗作廣屋 置寒乞人 教之以手業 各周其衣食 最下無能者 與之藁 使作芒鞋 一日之工 無不辦斗米[『土亭先生遺事』 권하, 土亭遺稿 附錄 諡狀; 『屏山集』 권11, 諡狀 土亭李公諡狀]

16) 先生哀流民弊衣乞食 爲作巨室以館之 誨之以手業 於土農工賈 無不面諭耳提 各周其衣食 而其中最無能者 與之禾藁 使作芒鞋 親董其役 一日能成十對 販之市 一日之工 無不辦斗米 推其剩以成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而不勝其苦 多有不告而遁者 以此觀之 蓋見生民因惰而飢雖疲癯百無一能 而未有不自爲芒鞋者 先生之示民近效妙矣哉 [『土亭先生遺事』 권하 記 遺事 出或人記事]

17) 이지함의 조카인 이산해가 찬한 이지함 묘갈명에는 결인청 기사가 없다.

그렇다면 위의 결인청에 관한 기사는 이지함의 생애 가운데 어느 시기의 일이었을까? 실록의 기사나 이관명이 찬한 시장에서는 위 기사를 아산현감 재위시기와 연계해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¹⁸⁾

그러나 19세기의 자료에서는 결인청에 대한 설명이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말기의 문신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편찬한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이지함이 기민을 구할한 일[李之菡救活]

선조(宣祖) 3년(1570)에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때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인(異人)이라고 하였다. 그는 유량하는 백성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밥을 구걸하는 꼴을 볼 때마다 여기고서 커다란 집을 지어 그들을 머물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쳐 각자 자기의 의식을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에게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는 그 일을 감독하니, 하루에 능히 열 켄레를 만들어 냈다. 그것을 내다가 팔자, 하루에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남은 이익을 미루어 그들의 옷가지를 만들도록 하니, 서너 달 사이에 옷과 식량이 모두 충분해졌다.¹⁹⁾

위 기사는 결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앞의 토정유고에 실려있는 <혹인기사>와 내용상 동일하다. 그런데 임하필기 <이지함구활>에서는 1570년(선조 3)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의 일이라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다. 사실 1570년은 전국적인 대기근이 발생한 해로 특히 7월에는 경상도와 경기 지방에 풍수해가 심하였다.

반면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진황 6조의 제3조 규모에서 ‘어진 사람이 진흙하는 데는 불쌍히 여길 뿐이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자는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다른 데로 가는 자는 머물러 두어, 내 고을이나 남의 고을이나 다름없이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토정 이지함의 예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다.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이 현령으로 있을 때,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치되 모두 친절히 일러서 각자 의식이 넉넉하도록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무능한 자는 벼짚을 주어 짚신을 삼도록 하고 그들의 일하는 것을 감독하니, 하루에 10켄레(對)를 만들어 팔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루 일한 것으로 쌀 한 말을 사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그중에 남는 것으로 옷을 지어 입도록 하니, 두어 달 사이에 의식이 모두 충족되었다. ○ 살피건대, 이는 풍년든 해의 유민들이다.²⁰⁾

다산 정약용의 위 기록은 이지함이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현령[종5품직]은 이지함이 종6품의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의 관직만을 지낸 것으로 보아 현감의 오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산 정약용의 위 기록은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18) 시장에서 아산현감 재위시기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後爲牙山縣監 又陳疏請減軍額 除一族法 言亦明白의當而寢不用 邑有池養魚 使民歲漁納官 民甚苦 先生塞其池 絕後患 教誘縣學 章甫之徒 講習文武才 期備邦家之用 未幾以疾卒于官 萬曆六年七月也 壽六十二 一邑之民 奔走號哭 如悲親戚

19) 『林下筆記』 권22 文獻指掌編 李之菡救活

20) 李土亭之菡 爲縣令 哀流民弊衣乞食 爲作巨室以館之 誨之以手業 無不面諭耳提 各周其衣食 其中最無能者 與之禾藁 使作藁鞋 親董其役 一日能成十對 販之市 一日之工 無不辦斗米 推其剩以成其衣 數月之間 衣食俱足 ○案此卽是豐歲之流民也[『목민심서』 賑荒 6조 제3조 規模]

이상 문헌기록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이지함의 결인청 운영에 대해서는 당대의 직접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결인청 운영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18세기 초에 이르면 결인청에 대한 구체화된 기록들이 보이는데, 여전히 언제 어디에서 결인청을 운영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9세기에 이르면, 보다 구체적인 결인청 운영 기록이 보이며,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1570년 영남’과 ‘토정 이지함이 현령으로 있을 때’의 두 가지 기록이 등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乞人廳’이라는 명칭을 문헌기록을 통해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결인청에 관한 후대의 기억은 토정 이지함에 대한 신비함과 함께 민중들에게 점차 확대되고 증폭되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설화에서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²¹⁾ 이러한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현대의 소설’에서는 더욱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

소설 토정비결에서는 아산현감이 된 이지함이 결인청을 두고 유랑민을 보살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임종을 앞둔 토정을 만나려고 아산현에 간 고창 서기가 그를 숙소로 안내하는 관비에게 묻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보게, 잠깐만, 이 방은 뭐하는 덴가?”

“예. 결인들이 쉬었다 가는 결인청입니다. … 이곳을 지나는 결인이면 아무나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제각기 기술을 익히고 적으나마 살림 밑천을 마련하면 양민이 되어서 이곳을 떠납니다. 그 동안 이곳을 스쳐간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이곳 아산의 결인이나 유랑민들은 다 없어졌으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바람에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감 어른은 조석으로 이곳에서 결인이나 유랑민들과 함께 진지를 드시고 같이 일도 하십니다.”²²⁾

5. 결인청의 현대적 활용방향

토정 이지함은 호서지역의 명문 한산이씨 가문의 인물이다. 고조부 이계전은 정난 1등공신으로 세조 정권에 참여하였으며, 아버지 이치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토정은 외가인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을 오가며 자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형 이지번에게 수학하며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종친인 모산수 이정량의 딸과 혼인한 후에는 처가인 충주에 거주하였다. 토정은 절친한 친구가 사화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장인이 역모사건에 휘말려 처가가 멸문의 화를 입게 되자, 처사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서울 마포에 토정을 짓고 살았으며, 전국을 유랑하면서 당대 최고의 학자와 교유 하였다. 말년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포천현감과 아산현감에 제수되었다. 고을 수령으로 자신의 경제 사상을 펼쳐보려 하였으나,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산현감 재임 중에 관아에서 사망하였다.

토정 이지함은 생애의 신비함과 극적요소, 애민사상과 청백리상(像)의 실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설과 일화, 『토정비결』과의 관련성 등으로 이제 현대인의 새로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²³⁾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명상, 1991), 박정열의 『이지함(소설)토정비결』(고려출판문화공사, 1992), 윤태현의 『토정

21) 설화에 대해서는 앞에 인용한 최운식의 연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22) 『소설 토정비결』(상), 새냄, 1993. 21쪽.

23) 토정설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신기한 전설을 남겨 현재 110여편이 확인 가능하다. 주로 풍수지리와, 주역에 통달하여 앞날을 미리 아는 기인의 면모가 돋보이며, 백성을 사랑했던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토정 이지함은 『토정비결』의 저자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정비결』은 토정의 저작이라기 보다는 후대에 제작된 비결서에 토정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지함』(식물추장, 2001), 문화영의 『소설 仙』(수선재, 2003) 등이 출판되어 일부는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올라 독자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아산은 토정 이지함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2개월여 만에 타계한 고을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에게는 어느 목민관보다도 토정 이지함의 일화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아산현감 이지함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치가 컸던 만큼, 선정을 오래 베풀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토정 이지함의 결인청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연고지를 여러 지역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지함이 목민관으로 재임했던 아산지역은 이를 선점하여 활용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토정 이지함에 대한 후대의 다양한 기억을 면밀히 검토하고, 역사적 실재 모습을 살피면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적 인물의 적극적 활용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본질이 왜곡됨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산에서 토정 이지함과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① ‘결인청’이라는 명칭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토정 이지함 당대의 자료나 후대의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문헌기록에서는 어디에서도 ‘乞人廳’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다. 아마 결인들을 모아놓고 이들의 재활을 돕는 복지기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乞人’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에서 ‘결인청’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아니면 후대인들이 언제인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적 용어’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② ‘결인청’이 건립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

토정 이지함 사후 수백년 후이기는 하지만 19세기의 구체적인 기록묘사에 의하면, ‘결인청’의 위치는 ‘영남지역’과 ‘토정 이지함이 현령으로 부임했던 고을’로 나뉜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 위치를 아산 고을로 상정할 경우에도 아산현의 어디에 ‘결인청’이 건립되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문헌기록에는 없다 하더라도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수집[전설, 소설, 스토리텔링 등 모든 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③ ‘결인청’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만일 오늘날 아산에 결인청을 짓는다면 이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토정 이지함의 시대에 ‘결인청’이 지어졌다면, 이는 한옥일 것이다. 그러나 이 한옥이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당시에 기와집은 많은 비용이 수반

되는 고급의 주택이었다. 과연 ‘결인청’을 그렇게 지었을까? 결인들을 진휼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면 기와집은 지나친 사치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가집인가? 초가집을 짓는다면 몇 칸의 집이었을까? 문헌기록상에는 ‘施設’ ‘廣屋’ ‘巨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묘사는 찾을 길이 없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결인청’의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면, 한옥보다 현대식 건물이 보다 효율성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④ 결인청의 기능과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결인청은 단순히 거지들을 돕기 위한 구휼에 그치지 않고, 주린 백성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을 모두 가르친 것도 아니었다. 토정유고의 <혹인가사>에서는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사농공가(士農工賈)에 수공업을 가르친다’고 했으며, 다산 정약용의 묘사에서도 ‘유민들이 해진 옷으로 걸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큰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처하게 하고, 수공업(手工業)을 가르친’ 곳이라고 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이를 ‘풍년든 해의 유민들’에 대한 진황책으로까지 보았다. 결인청에 몰려 든 사람들은 ‘원래 거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민(流民)’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백성들인 것이다. 이점에서 오늘날 결인청의 기능과 정신을 계승한다면 ‘보편복지’ 보다는 사업의 실패로 일시 부채에 허덕이면서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도움의 손길이 주어지면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인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늘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져 앞으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토 론

■ 임진왜란을 대비한 토정선생을 아십니까?

- 황 인 덕 교수 (충남대학교)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 강 종 원 역사박물관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 이 인 배 선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 아산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조명과 복원방향

- 이 무 희 회장 (아산시 영인면 노인회)

■ 토정선생과 걸인청을 활용한 아산 발전방안

- 이 흥 복 회장 (아산총무회)

(토론1)

임진왜란을 대비한 토정 선생을 아십니까?

충남대학교

교 수 황 인 덕

토정 선생은 조선조의 한 이채로운 인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아산 현감을 잠시 지낸 것으로 하여 아산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산의 대표적인 두 역사적 인물이 충무공과 이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무공이 왜란을 막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토정이 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애쓴 사실은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란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하여 경각시키고, 인물을 찾아내고 교육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 분이 바로 토정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표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임란 전에 토정이고 임란 후에 충무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산의 두 위대한 인물로 토정과 충무공을 병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충무공이 백의종군하여 남해로 내려가는 행로 600리길을 답사를 통하여 확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정의 국토 기행 경로를 찾아내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일도 한 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토정의 문집에는 본인이 쓴 글이 일곱 편밖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우암은 이에 대하여 “觀鳳一羽足以知五彩之成章”이라고 호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생각해 보면 토정이 글재주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실천을 위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토정은 남다른 국토 여행가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실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천을 하자면 국토를 알고 지역을 알고 지형을 알고 도로를 알고 민생을 알고 자원을 알고 경제를 알고 인재를 알아야 하겠기에 이 지방 저 지역 천지사방 헤매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외양은 늘 걸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재에 조용히 앉아 성리학 담론이나 따지던 일반 책상물림 유생들과는 생각이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정을 알자면 문헌 자료도 중요하지만 현지 답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족적이 스쳐간 현지를 두루 찾아내고 거기에 전하는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어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관심을 두고 그동안 현지를 찾아 더듬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해왔고, 얼마간 성과를 얻어 이를 토대로 몇 편의 논문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도 없이 토정 선생의 발자취를 제대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토정의 조카 아계는 숙부의 여행에 대하여 “배를 잘 부려 넓은 바다 밟기를 평지와 같이 했고, 국내의 산천은 아무리 멀어도 아니 간 데가 없으며, 아무리 험해도 안 건넌 데가 없었다. 혹은 여러 해가 되도록 어디로 갔었는지 알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을 무대로 아니 간 데 없이 다녔으니 그의 발자취를 더듬는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님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토정의 진면을 알자면 더욱 그의 이러한 국토여행의 궤적을 밝히는 것이 긴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천유학자”로서의 그를 생생한 모습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2)

토정 이지함과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사박물관장 강 종 원

현재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정체성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체성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미래비전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물질자원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지역의 내재적인 성장발전을 촉진시키는 사회의 문화적 역량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잠재력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토론회의 경우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정 이지함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특히 기이한 행동과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적 실체와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유명세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나 현창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토정에 대한 관심과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그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토정에 대해 편린의 지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두 선생님의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이 토정의 학문적 연구나 역사성을 토론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토정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고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민중에게 전해준 교훈과 위안의 메시지』(이이화)」에서는 토정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적인 이야기를 통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으며, 특히 토정비결이 갖는 민중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따르게 되는 고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결인청』의 실재와 활용방안(임선빈)」에서는 토정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결인청에 대한 검토, 나아가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토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금일 주제에 대한 의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토론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가. 토정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보다 선조수정실록에 훨씬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는 후대인이 기억하고 싶은 이지함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은 사초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정실록의 경우에는 민간의 전승이나 설화적인 이야기 등도 기록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정의 경우 위낙 기인적 성격이 있어 특별하게 기록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토정이 기민을 구휼한 내용에서 그 시기에 대한 문제 : 선조 3년(1570)에 영남에 심한 기근이 들어 이를 토정이 큰 집을 지어 구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토정이 처음 관직에 진출한 것은 1573년 포천현감이고, 그후 1578년 아산현감에 등용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아산에서 결인청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인청의 명칭이 등장한 시기도 불분명하며, 소설 토정비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청 서기가 등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고청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신데, 혹시 그의 문집 등에 관련내용이 있는지요?

다. 조선시대 구빈기관으로 진휼청과 상평창 등이 존재했는데, 결인청을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이들 국가의 공식적인 구빈기관과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들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대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구빈기관과 결인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정이 결인청에서 빈민을 구휼할시 사용된 예산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을까도 궁금합니다.

라. 토정의 경우 보령시에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산시의 경우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토정 이지함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오늘의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구한 역사문화자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산에서 과거 아산현감을 지내셨고, 일반인들에게는 토정비결로 널리 알려진 토정선생의 아산지역 행적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정 이지함은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역사적 인물로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역사문화적 차원의 원형발굴과 현대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의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토정 이지함의 역사유적과 원형콘텐츠 발굴

제2주제발표에서는 이지함과 관련된 유적으로 아산시에는 인산서원(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서원골), 이지함 영모비(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여민루(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아산향교(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어금니바위(토정의 죽음과 관련한 전설) 등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밖에도 더 관련된 유적들이 없는지 체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역사유적을 찾는 연구와 앞에서 제시된 유적에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들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원형 콘텐츠를 발굴하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에 의한 역사유적의 재현 추진

제2주제발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토정 이지함의 시대에 ‘걸인청’이 지어졌다면, 한옥이 기와집인지, 초가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집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걸인청’뿐만 아니라 토정 이지함과 관련된 다양한 원형콘텐츠를 일정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유적을 재현하는 사업의 추진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토정 이지함 관련 역사유적의 재현은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에 근거하여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면서도 현대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

4. 토정 관련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

앞에서 제안한 토정 이지함 관련 역사유적의 재현은 물리적 공간의 조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과 원형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토정 관련 문화콘텐츠 및 관광상품의 개발로 아산현감시절의 ‘걸인청’과 ‘토정비결’ 등을 포함하는 토정 이지함의 일생을 담아 현대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걸인청’은 복지관광차원으로, ‘토정비결’은 사람의 일생과 앞날을 예견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상품화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역사유적의 재현과 상품프로그램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콘텐츠 상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을 ‘걸인청’과 ‘토정비결’을 테마로 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 차원에서 찾고 만들어 이를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는 그 동안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던 온천과 현충사 등 역사적 문화관광 콘텐츠에 또 다른 인물에 역사자원의 가치를 더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더욱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토론4)

‘아산 결인청’의 역사문화적 가치조명과 복원 방향

아산시영인면 노인회

회 장 이 무 희

아산 결인청의 역사 문화적 가치 조명과 복원 방향

□ 아산 결인청의 역사

1576년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토정 이지함’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토정비결’이라는 예언서를 만든 인물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분은 높은 학문의 경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신 것으로 세계인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생산적 복지시설인 “결인청”을 설립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길이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선조 11년 1578년 전국적으로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는 상소를 올리고 아산 영인에 세계 최초로 생산적 복지기관인 결인청을 설립하여 빈민과 노약자를 구제하였습니다.

□ 아산 결인청의 의의

토정 이지함 선생이 설립하신 아산 결인청은 기존의 구황정책과 달리 구황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켜 궁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세계 역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었으며 서양에서 근대 복지정책의 아버지로 꼽는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도 말로서는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말로써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고 근대 사회학이나 복지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토정 이지함 선생은 말 뿐이 아닌 이론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를 세계 최초로 실천하였습니다. 진정한 근대 사회학과 복지학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인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능한 후손입니까! 우리가 아산 결인청을 다시 복원 설립하려는 것은 단지 지역사회 일의 아닙니다. 세계인들이 몰라서 잘못 알고 있는 학문과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자는 것이며 조상들의 빛난 업적을 기려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갖자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인정되고 있는 근대적 복지정책과 결인청 정책 비교

이탈리아의 마키아벨 리가 근대 복지정책의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기 로마에서 걸인들을 잡아들여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고 물을 퍼낼 수 있는 바가지를 각자에게 주어 며칠간 쉴 새 없이 물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걸인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 그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는 죽지 않기 위하여 물을 밤낮으로 퍼낼 때처럼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걸인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사회학의 인식관점이며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마키아벨리는 세계최초의 근대사회학과 복지정책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16세기를 살았던 토정 이지함 선생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인청은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을 것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이라든가 수공업까지 가르쳐 줌으로써 백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한 기관이었습니다."

-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노약자와 병자는 쉼신을 삼게 하고 건장한 이에겐 고기잡이를 시키고 손재주가 좋으면 수공업을 가르쳐 의식(衣食)을 자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 제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인청이었고 이를 이지함 선생께서 세계 최초로 건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키아벨리와 토정 이지함 선생 중에서 누가 진정한 근대사회학과 복지정책의 아버지라 할수 있습니까?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1) 시대적 환경

- 복지사회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인류사회의 지향점이다.
- 복지와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 속에서 생산적 복지가 주목 받고 있다.
-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다.

2)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의 의미

-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기관을 복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인다.
- 문화자원을 산업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 생산적 복지의 진정한 의미를 후손들에게 교육한다.

3) 방향

- 토정 이지함과 아산 결인청에 대한 발굴 조사
- 아산 결인청 복원
- 결인청 정신을 살린 직업체험관 운영
- 현청 및 박물관 설립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건의안 >

□ 제 목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 주 관 :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위원회

□ 기 간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재 정 : 민자, 국비+지방비(중앙정부, 충남도, 아산시)

□내용

- 1) 아산 결인청 및 토정 이지함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발굴 조사 연구
- 2)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 3) 영인초등학교 이전 → 영인중학교와 통합
- 4) 현존하는 ‘여민루’를 살려 ‘아산 현청’과 ‘토정 박물관’ 건립
- 5) 영인초등학교 교사를 활용한 ‘토정 직업체험관’과 ‘인성교육관’ 설립 운영

□예상 효과

- 1) 세계 문화유산 등재
- 2) 연 128만 명의 아산 방문객을 연 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유치하여 아산 발전 활성화
- 3) 인성교육과 생산적 복지교육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을 청소년들에게 교육
→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으로 민족적 단결심 고취
- 4) 문화유산 산업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원동력
- 5) 서해안 시대의 관문으로서의 아산시 위상 정립

2015년 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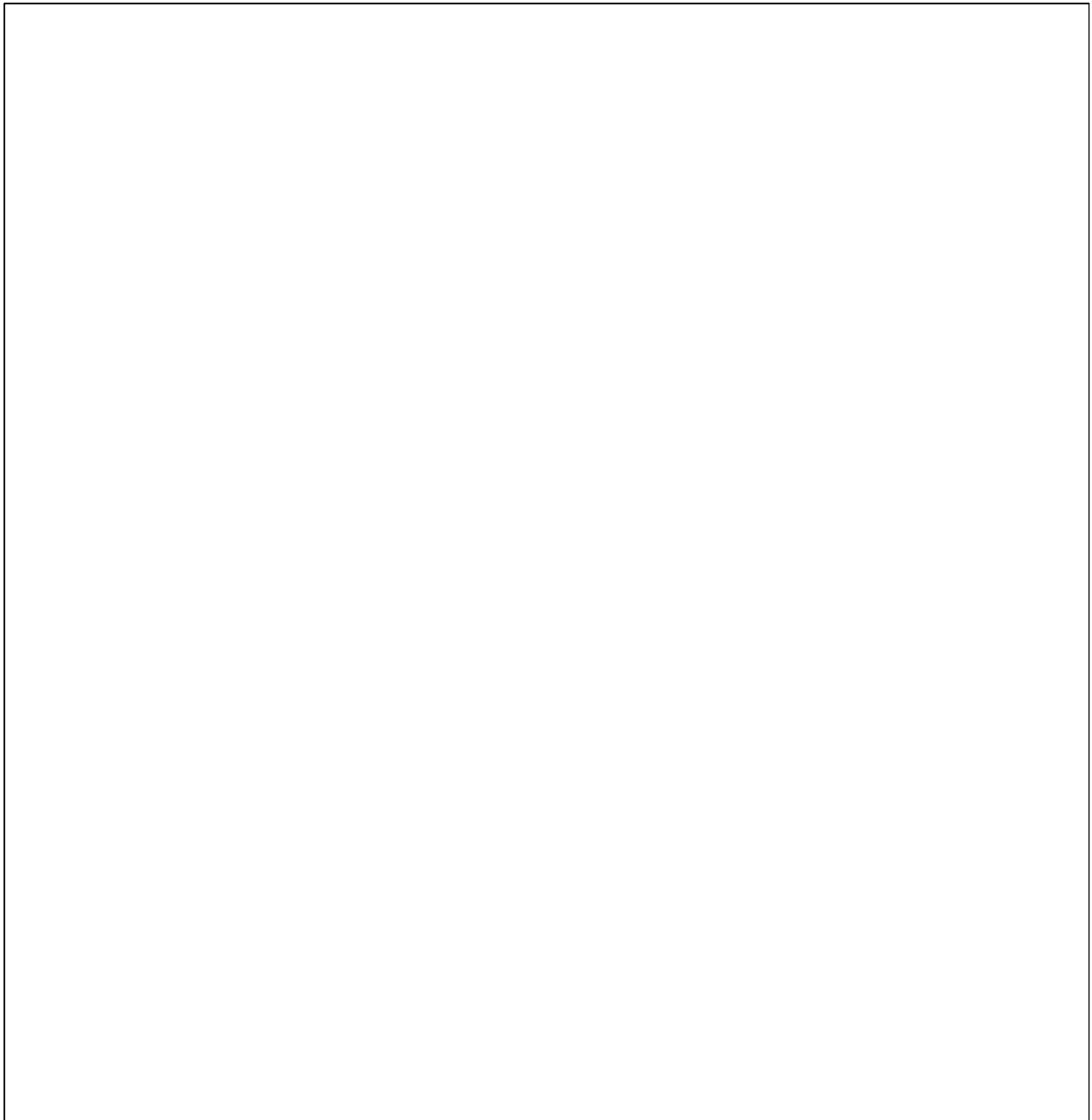
아산 결인청 복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 |
|--|
| · 고 문 : 이기철 |
| · 준비위원장 : 이무희 |
| · 준 비 위 원 : 최진희, 성기대, 이성우, 지용기, 이희주, 이몽리, 서남석, 이희명, 김원배, 박영목 |

(토론5)

토정선생과 걸인청을 활용한 아산 발전방안

아산충무회
회 장 이 흥 복



- Memo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blue or grey lines spaced evenly apart,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are no vertical line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 Memo -

- Memo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grey lines spaced evenly apart,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are no vertical line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blue or grey lines spaced evenly apart,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are no vertical line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grey lines spaced evenly apart, typical of notebook paper. The lines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leaving small margins at the top and bottom. There are no vertical lines or other markings present.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At the top center, there is a title area containing the text "- Memo -". The rest of the page is filled with evenly spaced horizontal lines, providing space for writing. The paper has a clean, minimalist design.